



개강맞이 대학생다함께 마르크스주의 포럼

야만적 세계를 변혁하길 원하는 뜨거운 청춘을 환영합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항상 바뀝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항상 모든 것을 변혁시키면서 수많은 이들의 삶에 변화의 소용돌이를 불러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만 해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내몰립니다. 기후 변화로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고, 식료품 가격이 인상돼 고통 받습니다. 지배자들의 핵무기 보유 욕구 때문에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는 인류 전체를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착취와 억압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저항도 벌어집니다. 아랍혁명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월가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탐욕에 반대하는 전세계적 ‘점령하라’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긴축에 반대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경제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을 비롯한 99%의 저항이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위대한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인류가 직면한 선택이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윤을 위한 눈 먼 경쟁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를 없애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기후변화, 전쟁, 파시즘 등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것입니다.

21세기 야만에 맞선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항이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운동을 확대할 활동가들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함께’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대학생, 할 무엇을 할 것인가?’

4/7(토) ~ 8(일)

장소 서울 소재 대학(추후 공지)

주최 대학생다함께

student@alltogether.or.kr

010.5678.8630

올해로 7회째 열리는 ‘개강맞이 대학생다함께 마르크스주의 포럼’은 진보적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주제들에 대해 함께 강연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며 토론하는 장입니다.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이 담긴 명쾌한 강연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수업식 강연이 아닙니다. 강연 후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많은 새내기와 재학생들에게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경제위기, 아랍혁명, 여성, 노동자 투쟁, 북한 등의 주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 궁금한 당신
위기의 시대, 대안을 찾고 있는 당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인 당신

‘개강맞이 대학생다함께 마르크스주의 포럼’을 놓치지 마세요!

- 자세한 강연 주제와 연사는 추후 공지됩니다.
- 대학생다함께가 주최하는 마르크스주의 포럼은 대학에서도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대학생 다함께를 소개합니다



alltogether.or.kr
student@alltogether.or.kr
010.5678.8630



대학생 다함께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노동자 연대 다함께는

경제 위기 고통선거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를 건설합니다. 이윤이 우선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다른 세계를 지지합니다. 이를 위해 거리, 직장, 캠퍼스, 지역사회에서 저항을 조직하고 투쟁하는 단체입니다. 10년 전에 민주노동당 학생단체가 이름을 바꾸고 좀 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조직한 것이 시발점이었습니다.



대학생다함께는

다함께의 대학생 회원들의 모임입니다.



이화여대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



1300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국민대 등록금 인상 항의 서명 운동



외대 비리 총장 퇴진 투쟁



2차 희망의 버스



학내미화노동자 투쟁연대활동



- 캠퍼스에서 적절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운동을 건설합니다.
- 경제 위기 고통 선거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그들의 정치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다양한 사회 운동에도 함께합니다.
- 진보정당의 성장을 지지합니다. 또, 진보정당이 진보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노력합니다.
- 대학생다함께는 정기적으로 캠퍼스에서 공개적인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을 개최합니다. 마르크스주의 포럼은 위기의 시대에 대안을 모색하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 또, 매해 초에는 개강맞이 토론회를 열고, 여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좌파적 포럼인 '맑시즘을 개최합니다.
- 저항의 길잡이, 좌파 언론 <레프트21>을 구독하고 판매합니다.
- 분석이 명쾌하고 문체가 화끈한 <레프트21>을 주변사람들에게도 판매합니다.
- 대학생 회원 총회에 참석해서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평가하는 토론을 합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를 함께 토론합니다.

미니맑시즘2011



학내 <Left21>가판

